

“盧 코드·MB 고소영 인사 인수위 인선때 반면교사로”

새누리당 최고위원들 “대통령·국민통합 기를 마련해야”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2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성공적인 정권출범을 위한 주문을 쏟아냈다. 이들은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수위 인선부터 박 당선인에 대선 기간 강조해온 대량평 인사를 통해 국민통합의 기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시대의 정신이 국민통합”이라며 “국민을 하나로 하는 것 이상 더 큰 정치의 목표가 어디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인사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지역이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국도를 조화롭게 잘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의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인수위는 그야말로 업무인수, 새 정부의 준비 작업”이라며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오

랜지 논란처럼 설익은 구상으로 혼란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방향, 역할 지침이 잘 설정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과거 노무현 정권의 코드인사,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출신) 인사 등 잘못된 모습을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명심하길 바란다”며 “인사에서 흑역사나 탕평, 통합 때문에 능력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잘 짜야 할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당선인이) 이제 시험대에 섰다고 생각한다. 첫 단추와 첫 일년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인사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선인이 제시한 대량평의 원칙에 걸맞은 능력과 식견을 갖춘 인물을 판단하는 인사가 첫 단추에서 잘 끼워지기를 기대한다”며 “정책의 검증, 완급을 빨리 설정해 민생문제는 새 정부 출범 전에도 당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이제 (국민의) 염원을 실천해갈 때다. 조만간 구성될 인수위가 국민대통합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수위가 전 정권의 인수인계만 담당하는 공학적 영역을 넘어서 향후 국정운영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병수 사무총장은 “8월 대선 경선부터 선거일까지 전 과정의 백서를 발간하러 한다”며 “객관적이고 새 정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백서를 만들 것이며 2월 20일까지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선 승리 후 부적절한 언행이 돌출될 수 있다”며 “오늘 중으로 시·도당에 부적절한 언행이 발생해 당과 당선인에 누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지침을 내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민생행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관악구 난향동 '난국 사랑의 밥집'을 찾아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제공할 도시락을 만든 뒤 밝게 웃고 있다. 지난 19일 대선 승리 후 인수위 인선 등을 위한 자택 구상에 들어간지 사흘만의 대외활동 재개다. /연합뉴스

인수위는 ‘실무형’ 인원도 100명 안팎

국정과제에 역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실무형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규모는 역대 정권의 절반에 불과한 100여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인수위원장은 국민대통합 등 박 당선인의 국정기조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 기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나머지

는 거의 실무 인력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인수위는 공약 점검과 함께 전임 정부의 정책 계승 여부를 검토하며 향후 5년 간의 국정과제를 정하는 데 역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인수위가 각종 정책을 놓고 많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며 “인수위가 국정 과제를 검토하기는 하겠지만 언

론에 대항뉴스를 양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권재창출인 만큼 조용하게 업무 인수·인계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마치 인수위가 ‘점령군’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지지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용한’ 인수위와는 달리 박 당선인은 평소처럼 대외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세신, 국민대통합, 민생최우선 등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메시지를 계속 국민에게 전파한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박 당선인은 성탄절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 관악구의 한 사회봉사시설에서 봉사활동에 나섰다. 인수위가 구성되더라도 이 같은 일정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이 민생에 최우선적으로 방점이 찍혀있다는 점에서 정부 출범 이전에도 민생과 관련된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2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朴 인사 원칙은 ‘철통보안’

언론서 이름 언급되는 사람은 되레 배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첫 인선인 인수위원회 구성을 놓고 속고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여러 인사 때마다 보여줬던 ‘철통보안’ 인사스타일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인수위 인선은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취재경쟁에 불이 붙었지만 박 당선인 측은 당초 알려진 대로 24일 당선인 비서실장과 대변인만 발표하고 나머지 인수위원장과 인수위

원에 대한 정보는 전혀 흘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나 당선인 측근들은 박 당선인이 인사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다.

최근 박 당선인의 인사에서도 이 같은 성향은 뚜렷이 드러났다. 지난해 말 당 비상대책위원 인선이 하루 전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놓고 그는 “촉새가 나불거려서...”라고 인잖아

했고, 올해 초 총선 공천심사위원회와 대선 과정 중앙선대위 인선에서도 보안이 최우선적으로 강조됐다.

역대 대통령 중에는 일부러 후보군을 흘려서 언론 등으로부터 사전 검증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에서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은 보안 중시하는 쪽으로 분류된다. 이렇다 보니 언론에 미리 이름이 언급되는 인사는 최종 결정에서 배제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유력 인사들이 “전혀 모른다”고 한 발 빠른 입장을 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측근 라인이나 전라 라인, 원로 그룹 등 여러 곳에서 후보리스트를 전달받은 뒤 누군가와 상의하는 법이 거의 없이 해당 후보의 전력이나 이력서 등을 혼자 꼼꼼히 살펴면서 인선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측근은 “보안을 지켜 인사를 발표했을 때 그 인사가 가지고 오는 효과,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며 “인사가 미리 새나갔을 때는 ‘자가발전’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이어 “미리 후보군을 띄워서 검증을 하게 하는 정공법이 아닌 것은 안 쓰려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언론에 특종도 안 주지만 낙종도 안 시키는 게 당선인의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SK telecom

4G LTE

국가고객 만족도(NCSI)
15년 연속 1위

한국산업 고객만족도(KCSI)
15년 연속 1위

한국서비스 품질지수(KS-SQI)
13년 연속 1위

사랑받으면서,
감사하면서,
보답하면서!

[SK텔레콤 2012년 3대 고객만족평가 트리플크라운]

올해도 변함없이 SK텔레콤을 사랑해주신 2600만 고객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3년에는 더 크게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감동받는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NCSI

KCSI

KS-SQI

SK텔레콤의 고객중심경영

SK텔레콤은 진정한 고객만족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고 고객과 더불어 발전하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경영진들 비롯한 모든 임직원이 고객을 중심에 두고 경영활동의 의사결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면서 한다

빛日만평

- 김중두

올해도 괜히 왔는가 싶다